

한 해를 마감하며...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이기태 회장

협회 창립 20주년의 해인 2007년도 벌써 11월에 접어들어 이제 연말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협회는 올해 'KAIT2010' 비전을 세우고 그 각오를 다지고자 1월 1일 태백산 정상에서 시무식을 갖고 '고객만족'을 위해 열심히 달려 왔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창립의 정신과 발자취를 기록한 <KAIT 20년사>를 발간하고,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는 한편, 11월에는 회원사와 함께하는 '제 1회 KAITcup 축구대회'를 여는 등 다양한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와 서비스를 회원사 및 고객과 함께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 협회의 주요 활동을 되돌아보면, 국회 과기정위 위원들과의 IT 업계간담회 개최, 한·미 FTA 협상 시 IT분야의 대 정부 창구 역할, 통방융합 관련 기구통합 및 IPTV 연내시행 촉구를 위한 업계의 공동의견 수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협회는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FTTH산업협의회', 'LBS협의회', 'CPO협의회' 등 다양한 형태의 협의회를 운영함과 동시에 '한국IT리더스포럼', '정보통신포럼', '정보통신 주요정책 설명회', 'IT산업전망 컨퍼런스' 등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IT업계와 정부를 잇는 대표적인 민간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4월에는 기존에 개최되어 오던 국내 유사 5개 IT전시회를 묶은 국내 최대 통합 IT전시회인 '한국정보통신대전(Korea IT Show)'을 개최해 '한국판 세빛쇼'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협회는 건전한 IT이용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올해 초 이동통신 3사와 공동으로 명의도용과 요금 과·부당청구 등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민원을 해결해주는 '통신민원조정센터'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처리

해 주는 한편,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를 운영하여 통신이용자 정보보호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10월부터는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전국민을 대상으로 'Give폰 캠페인'을 진행, 중고휴대폰 수거는 물론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익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인터넷안전과 개인정보, 소비자보호 관리 수준 등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을 통해 부여하는 '개인정보보호마크'와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는 사이버거래의 안전지킴이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역시 국내 IT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Communic Asia 2007' 전시회에서 국가관으로서의 최대 규모로 국내 중소기업 80개사가 참가한 한국 공동관을 구성하였고, 헝가리, 루마니아, 포르투갈 등에 국내 유망 중소기업 10개사를 파견하는 등 많은 중소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 및 진출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대한민국멀티미디어기술대상'과 8회째 개최되고 있는 '모바일기술대상'은 IT산업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다음 세대를 책임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업체를 격려하는데 명실상부한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전 분야에서 활발한 창업분위기 조성과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정보통신 벤처창

업 경진대회'는 예비창업자들의 등용문으로 올해 9회째를 맞아 보다 뛰어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채택, 우수 벤처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는 한편, 수상자들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도 자리를 잡는 등 벤처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협회 부설기관인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는 IT인재양성사관학교로서 자격검정사업을 통해 인터넷 정보관리사, 리눅스마스터, 디지털정보활용능력 등 8개 종목 15개 등급에 2만 1천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IT분야 자격기관의 합격자 DB통합을 통해 IT통합 인증서 발급 및 IT전문인력에 대한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자격의 개발 및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는 등 IT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제 성년이 된 협회는 앞으로도 향후 20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임직원의 업무역량 제고는 물론, 고객우선의 현장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여 정보통신업계의 대표단체로서 IT강국 KOREA 건설과 미래 IT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 동안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과 격려를 보내 주신 회원사및 고객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